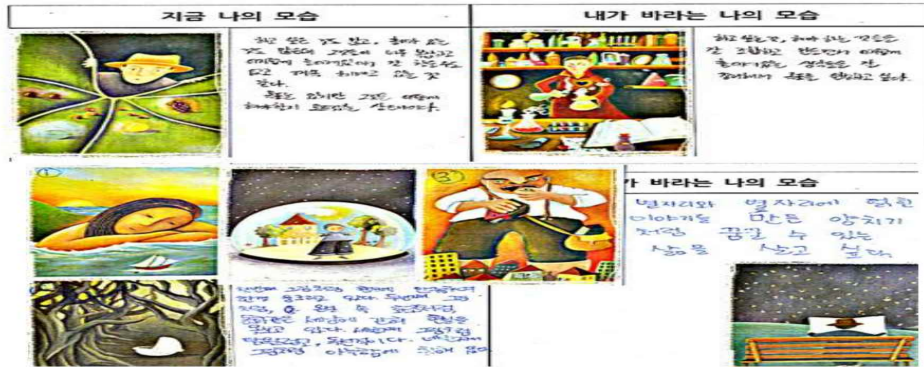


여행을 통한 넘나들며 배우기



- 산청간디학교 도서관 內 현판 -

- 일 시: 2015. 4. 29.(수) 17:00 ~ 19:00
- 장 소: 건신대학원대학교 소강당
- 주 칙: (사)공감만세 인터내셔널 ·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
- 후 원: 월간 「토마토」



낯선 곳에서의 시간들은 설레는 만큼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때 순간마다 내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건

책나이프도, 가이드북도, 비상금도 아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길 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러할 때 여행의 시간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곳에서 나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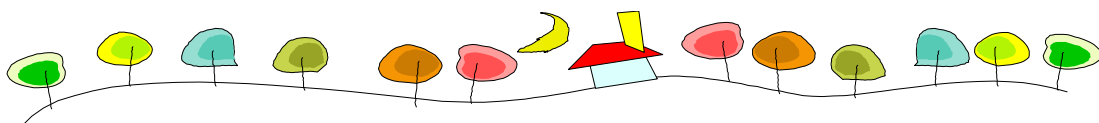
• • • • •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40~17:00	20'	등록 및 나눔 시간(다과)	소강당입구
17:00~17:05	5'	개회 및 국민의례	
17:05~17:10	5'	내빈 소개 및 인사말 - 전용란(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사회: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장)
17:10~17:30	20'	◦ 기조 발표: 변화와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여행 학습의 의의 및 교육적 가치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7:30~18:20	50'	◦ 사례 발표 - 두런학교의 전주 공정여행 실천 사례 (박동우 대안교육센터 우리동네 부센터장) -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과 복지의 만남 사례 (이진숙 신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 - 제천간디학교의 필리핀 해외이동 학습 사례 (김정환 제천간디학교 교사)	
18:20~18:40	20'	◦ 제언 - 안전한 교육과 교육의 안전: 여행학습에 대한 새로운 성찰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주임교수)	
18:40~19:00	20'	질의응답	



· · · · · 목 차

● 기조 발표: 변화와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여행의 의의 및 교육적 가치(권선희)	1
● 사례 발표:	
- 득런학교의 전주 공정여행 실천 사례 (박동우) ...	10
-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과 복지의 만남 실천 사례 (이진숙)	17
- 제천간디학교의 필리핀 해외이동 학습 사례 (김정환)	26
● 제 언: 안전한 교육과 교육의 안전-여행학습에 대한 새로운 성찰 (하태욱)	49

기조발표

변화와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여행 학습의 의의 및 교육적 가치

권선필(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습경험으로서 공정여행



권 선 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FTK-Ii(Fair Travel Korea International) 이사장

목차

- 여행트렌드를 넘어서
- 공감만세 비즈니스 모델
- 공감만세 여행 모델
- 교육으로서 여행과정
- 교육자로서 여행 코디네이터

한국인의 해외여행



한국인의 해외여행

관광, 쇼핑, 맛, 해소

한글과 세계여행

언 어 어디까지 가고 싶니??

비행기 탑승이전 꼭확인하세요!

국제선 탑승시 한국에서 받은 영수증(항공권, 여권, 출국신고서, 기타 217274) 100%반환
 또는 유류권(항공권 20%가량) 100%반환 가능합니다. 특히 유류권 반환을 위해서는 유류권
 코드 1415000 1번까지 반드시 기재해 놓으셔야 합니다. (항공권 코드 1415000)

여기 여행준비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행준비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행준비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행준비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행준비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행준비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최근의 여행트렌드

• 2015년 세계관광트렌드 7



• 2015 국내 관광 트렌드

중국, 한국 관광 시장의 치열한 싸움다
관광, 경쟁을 치른다
관광의 기본 가치 (NEW 3S: Safe, Sustainable, Social) 존중 여행 확산
모바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형태
휴가로 불편함, OR(Outdoor Recreation) 여행
지역의 숨겨진 매력물 찾아 떠나는 여행
배움으로의 행적을 추구하는 여행문화, 슬로잉 여행
스스로 즐기고 떠나는 DIY 여행
관광의 斷斷絶絶으로 부상하는 중장년층
칩 시크(Cheap-Chic)를 추구하는 상류층 관광스타일 등장

여행 목적/가치의 변화



공감만세의 공정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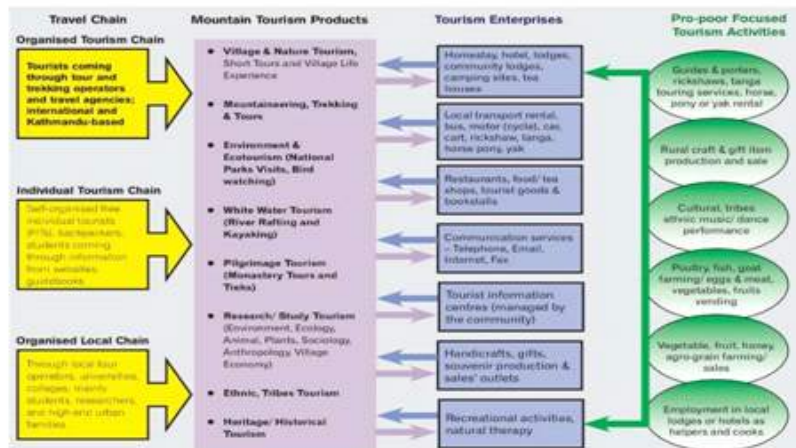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선택, 공정여행!

20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의기투합하여 만든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지역마다 10개의 단체와 함께 공정여행 공동체를 구성, 6개월 간 10회의 답사 100회의 회의를 통해 공정여행 상품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행 상품 매출의 90% 지역사회 환원, 이익의 10% 환경단체 기부, 10명의 원주민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여행을 할 때, 1명의 저소득층 아이에게 공정여행을 제공하고, 이런 시도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우리는 청년 여행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입니다.

7

여행흐름에 대응하는 여행산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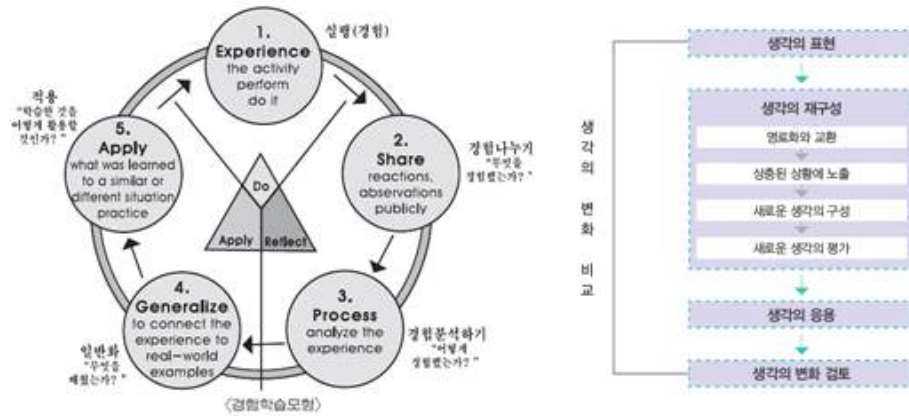
The top photograph shows a group of children in a classroom, standing in front of a chalkboard. The middle photograph shows two children, a girl and a boy, sitting together. The bottom photograph shows a large group of children standing outdoors in a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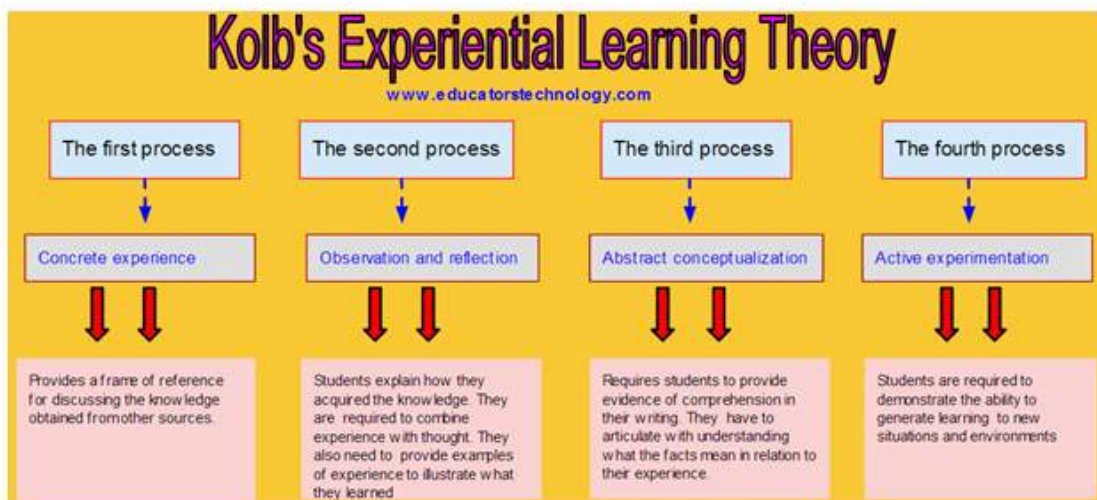
The Atlantic, March 31, 2015.

-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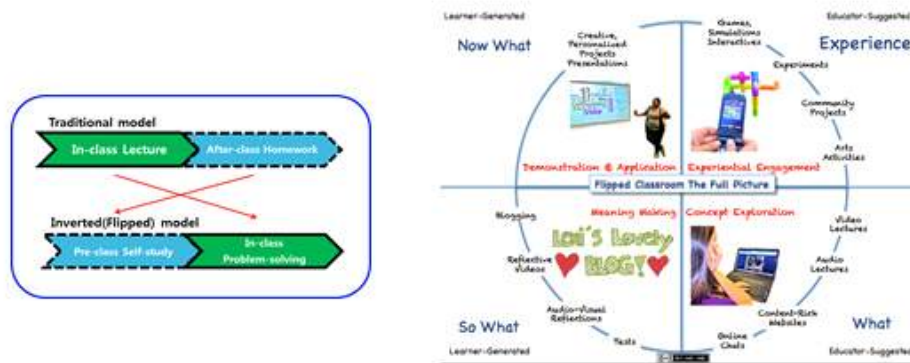


11



12

역전학습(Flipped Learning)



13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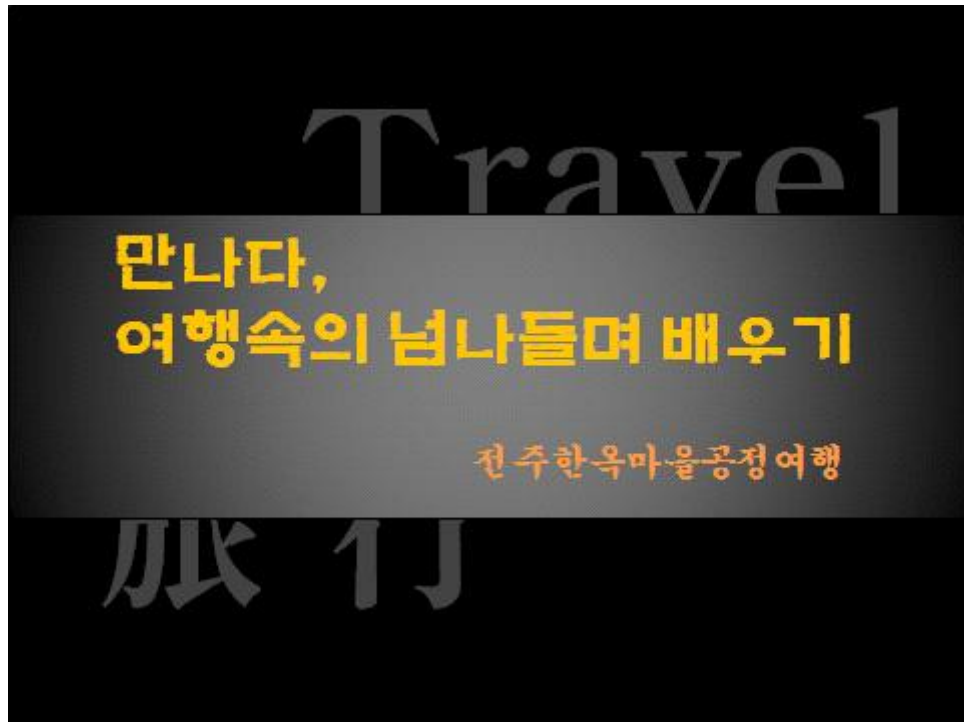
14



사례 발표

두려움의 전주 공적여행 실천 사례

박동우(대안교육센터 우리동네 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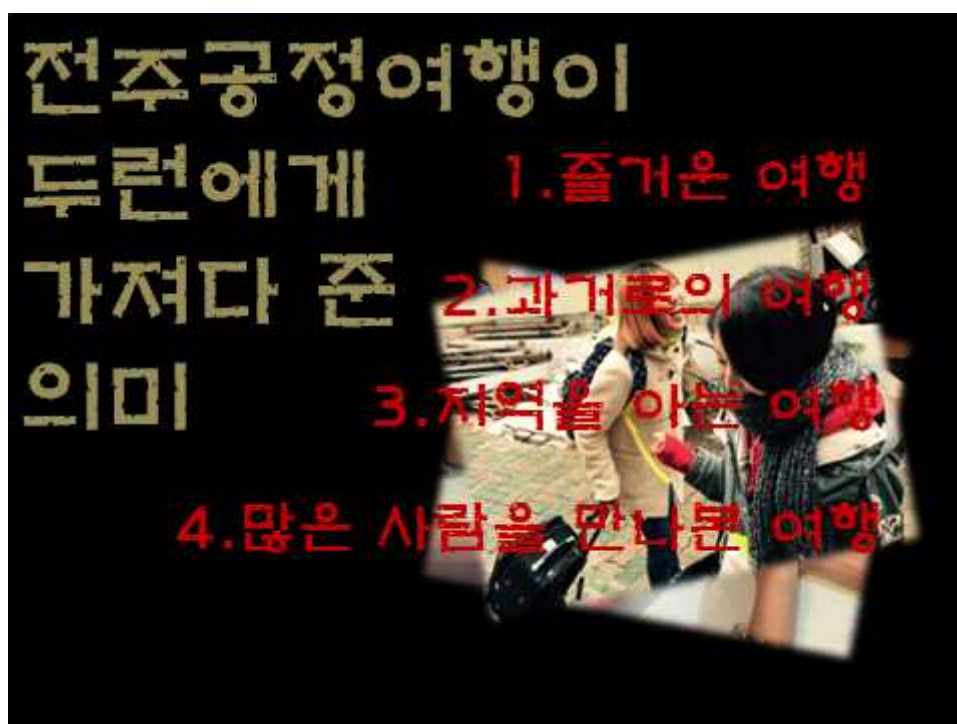












사례발표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과 복지의 만남 실천사례

이진숙(신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

꿈이 자라는 교실

대전신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 이 진 숙

1. 여는 글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

4. 현장 체험 사례

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 시대가 보이는 역사기행

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 꽃동네 사랑의 봉사캠프

다. 동아리와 함께한 프로그램 - 문학기행

5. 맺는 글

1. 여는 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공교육도 다양한 교육의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것 같다. IT 발전에 따른 삶의 환경이 급변하며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 현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성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발상의 전환을 하는 많은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소외라는 위축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고, 관심과 격려로 사랑을 주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개인의 재능과 끼를 개발하여 삶이 변화하는 학생, 희망의 씨앗을 가꾸는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업이다.

오랫동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 관리하며 학생에 대한 사랑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인간 존중 및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온 경험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복지지원사업이 보편화 되었으면 싶다. 학생들과 생활한 현장전문가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간 시행했던 프로그램 중 몇 가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가. 정의 및 배경

교육 취약 학생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습, 문화, 심리정서 등 학생들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지원사업으로 1990년대 외환 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심화, 다문화, 새터민가정 등 신 취약계층의 확대, 가족기능 약화로 지역별, 학교별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교육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 지속하고 있다.

나. 사업 추진체제 및 현황

대전시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고, 외적으로는 지역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학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대전광역시 사업학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총 44개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는 교육복지사업을 위하여 교육복지실을 설치하여 교육복지사업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육복지실은 상시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휴식 공간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대상선정 기준 및 선정

1) 대상학생 선정기준

- 1차는 복지시설입소, 기초생활수급,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가정 학생
- 2차는 소득재산조사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정 학생
- 3차는 학교장인정 중식대상자 및 담임추천 학생
- 3차 별도는 기초학력미달,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학생 등 특별히 교육복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2) 대상학생 선정절차

각 가정에서 학비지원 신청 이후, 교육청에 탑재된 나이스자료(1,2차 대상자)와 함께 위의 3차와 3차 별도로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추천서를 받아 대상학생 보호자로부터 신청서 작성 및 동의, 첨부서류를 갖춘 후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

사업영역은 프로그램, 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지원 4개 영역이다.

첫째,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결핍요인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일반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둘째, 사례관리 영역에서는 우선지원학생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정방문, 학교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집중지원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운영 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교육복지실 활성화 사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두루사랑행복 네트워크, 희망나눔사례관리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등을 운영 한다.

넷째, 운영지원은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등을 지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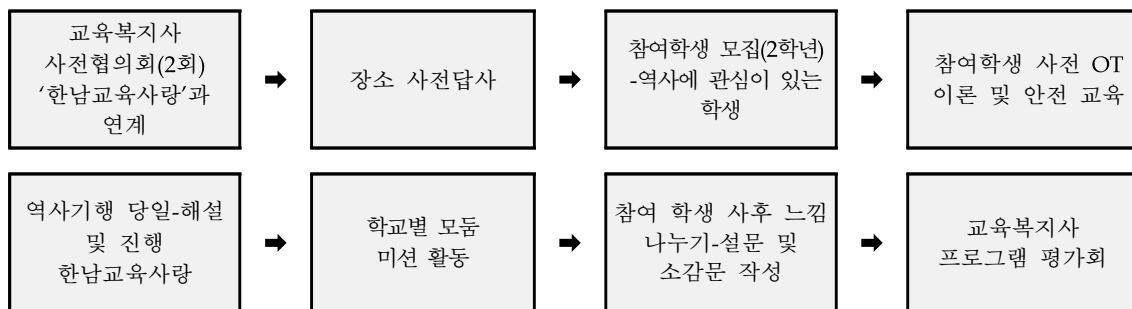
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 시대가 보이는 역사기행

1) 추진목적

- ▶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 갖는 초석 마련
- ▶ 역사적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찾아가 직접 눈으로 보고, 역사 문화를 향유하며 문화감수성을 높임
- ▶ 교과서속 역사를 즐겁게 배우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 함

2) 추진내용

① 추진방법



② 2014~2015년 역사기행 참여 현황

- 2014 참여학교 : 중구지역 교육복지 중학교 4개교
- 2015 참여학교 : 중구지역 교육복지 중학교 7개교

실시년도	일 시	참여 인원	장 소
2014	2014. 08. 06.(토)	총인원 38명	군산-근현대사 역사기행
"	2014. 10. 11.(토)	총인원 36명	대구-근현대사 역사기행
2015	2015. 06. 09. 10월 예정	총인원 70여명	나주-고려와 해상 무역 역사기행
			부여- 사비 백제시대 역사기행
		총인원 35명	고령-대가야 역사기행

3) 추진성과

- ▶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관을 심어주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향상 시키게 됨.
- ▶ 역사에 대한 배경 설명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시대적 문화를 알게 됨.
- ▶ 여러 학교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자기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됨.
- ▶ 역사기행을 한번 다녀온 학생들은 역사가 즐겁고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더욱 참여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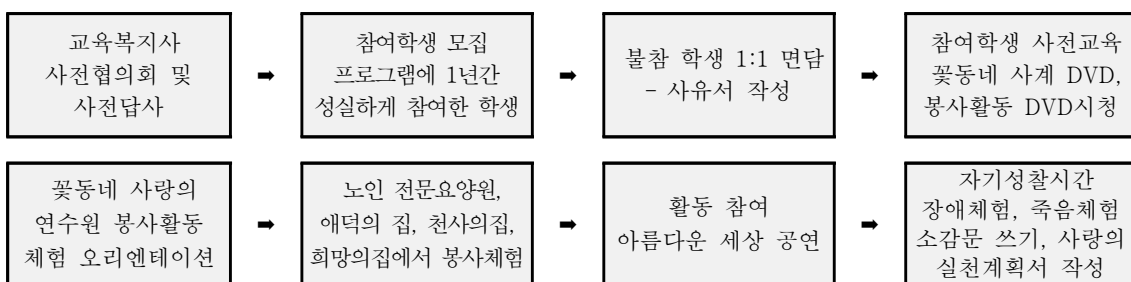
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 꽃동네 사랑의 봉사캠프

1) 추진목적

- ▶ 인성교육 강화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
- ▶ 가치 있는 봉사활동의 체험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마련
- ▶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건전한 인격형성과 전인적 성장

2) 추진내용

① 추진방법



② 2008~2015년 꽃동네 봉사활동 참여 현황

실시년도	봉사체험일	참여 인원	비고
2008	7.21~7.23	대상학생 40명	대전신일여중
2009	7.22~7.24	대상학생 80명	대전신일여중
2010	1.13~1.15	대상학생 40명	대전신일여중
2011	1.24~1.26	참여한 총인원 100명	교육복지학교와 연계
2012	1.11~1.13	참여한 총인원 120명	교육복지학교와 연계

2013	1.14~1.16	참여한 총인원 120명	교육복지학교와 연계
2014	1.14~1.16	참여한 총인원 120명	교육복지학교와 연계
2015	1.14~1.16	참여한 총인원 120명	교육복지학교와 연계

3) 추진성과

- ▶ 꽃동네 봉사활동을 통하여 베풀고 나눔의 마음을 배우고 삶의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됨.
- ▶ 식사준비, 말벗 되어드리기, 목욕도와 드리기, 청소, 빨래개기 등 꽃동네 가족을 돕는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삶이 감사하다는 것과 가족,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됨.
- ▶ 꽃동네 봉사활동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동시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 2008년~ 2010년은 신일여중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나 2011년 이후는 네트워킹을 통하여 중구지역 교육복지 중학교 6개교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날자 예약, 사전답사, 차량운행, 간식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음.

다. 동아리와 함께한 프로그램 - 문학기행

1) 추진목적

- ▶ 우리 문단의 작가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봄으로써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
- ▶ 작가의 창작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문학의 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나아가 미래 문학의 초석이 되는 기회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추진내용

- ▶ 2007~2014년 문학기행 현황

실시년도	일시	참여 인원	내 용
2007	7.27(금)	대상학생 40명	경북 - 육사문학관
2008	1차 5. 24.(토)	대상학생 40명	강원 - 이효석 문학관, 토지 문학공원
	2차 10. 11.(토)	대상학생 40명	경남 - 청마 문학관, 김달진 문학관
2009	5. 23.(토)	대상학생 40명	전북 - 아리랑, 채만식, 최명희 문학관
2010	5. 29.(토)	대상학생 40명	경북 - 동리·목월 문학관
2011	5. 21.(토)	대상학생 40명	충북 - 정지용 문학관
2012	5. 12.(토)	대상학생 40명	강원 - 이효석 문학관
2013	5. 11.(토)	대상학생 40명	충남 - 만해 한용운 문학체험관
2014	5. 10.(토)	대상학생 40명	양평 - 황순원 문학촌
2015	5. 9.(토)	대상학생 40명	전북 - 채만식, 조정래 문학관

3) 추진성과

- ▶ 국어과 교사가 지도하는 문예동아리(시나브로) 학생들과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문학기행이 해가 갈수록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나누며,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나누는 계기가 됨.

- ▶ 문학기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가와 만남으로써,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어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됨.
- ▶ 작가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해당 작가의 지역 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생각이 깊어지는 계기가 됨.

4. 현장체험 사례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복지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봄날에 연한 초록 잎사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듯 언제나 새로움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학교라는 제한된 틀이지만 시도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학생들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에 관한 복지 전반에 걸쳐 개인과 그룹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떠올려 본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가야금 등 중학교 3년 동안 악기를 배우고 익히며 입학식, 졸업식 연주활동을 하였다. 악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훌륭한 연주활동 경험이며 무척이나 신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지금은 많은 현장체험학습으로 보편화 되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 대전시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장 견학과 체험을 하였는데 방학과 추수 때는 농촌체험을 다니며 메뚜기 잡기, 탈곡하기, 솔방울 주어 작품 만들기, 깻잎과 고추 따기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며 학생들은 참으로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여름에는 스파랜드에서 신나는 물놀이 체험과 겨울에는 눈썰매 체험, 2박3일의 스키캠프, 태백 눈꽃축제 등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더불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한 'Open your min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 한라산 등반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렀고 '소리드림 뮤지컬단'이라는 팀을 구성하여 뮤지컬 '그리스'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두 해에 걸쳐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교류문화원과 연계한 해외파견 청소년 교류사업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였다.

대학생 언니와 학습 멘토링을 하던 아이가 있었다. 3년 연속 멘토링을 하더니 공부에 재미있고, 그동안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낭비한 지나간 시간이 아쉽다고 했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동부교육청은 코레일과 연계협약을 맺었으며 대전-부산간 KTX, 섬진강 S트레인 기차 가족여행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50여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속에는 또 더 많은 세부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 2014년 시행 전체 프로그램>

영역	사업명	프로그램	영역	사업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임당 교실	학습멘토링	사례 관리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우선지원학생 사례관리	
		학습코칭			심리검사	
		문화체험			가정방문	
		효체험			학교생활지원	
	신일 DREAM UP	행복한 꿈 여행 진로 책자 제작 및 교육			집중지원학생 사례관리	심리검사
		행복한 꿈 여행 진로 체험				가정방문
		신일 비전형성				교복수선 및 맞춤지원
		영어 캠프				긴급지원
	I & WE 소중해 동아리활동	현악동아리	소계	(1)개 사업	(8)개 프로그램	
		밴드동아리-라운	네트 워크	교육복지실 활성화	Happiness Zone	
		기타동아리			YOU IN I 교육복지의 날	
		문예동아리-시나브로			꿈과 희망의 우리들 캠프	
		신일 인형극 SPPC			교육복지 백일장	
		문학기행		지역네트워크운영	지역자원조사	
		겨울문화체험			지역네트워크협의회	
	아름다운 나눔	Apple Day			사랑의 송편나눔	
		꽃동네 봉사활동			Fun Fun한 동아리축제	
		신일나눔미 - 장애청소년 봉사			행복한 떡국나눔	
		오월드 체험 및 봉사활동			슈퍼비전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례집발간	
	사랑해요 대한민국	나눔교육	소계	(3)개 사업	(11)개 프로그램	
		시대가 보이는 역사 기행	운영 지원	교육복지사업 운영	교육복지사업 운영	
		독도는 우리 땅			교육복지사업 연수	
		통일 꿈 품기			교육복지사 활동	
	With our Teachers	물사랑 학교	소계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공연관람	총계	(12)개 사업	(54)개 프로그램	
		소리드림 뮤지컬				
	문화 바우처					
	행복 & 힐링 우리가족	가족사랑 행복플러스				
		행복충전 KTX가족기차여행				
		우리가족 야구장 데이트				
	우리가족 축구장 데이트					
소계		(7)개 사업	(32)개 프로그램			

“선생님! 언제 또 놀러갈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렇게 질문을 한다. “애들아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예~” 참 반가운 대답이다. 움직이기 싫고, 귀찮아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의욕이 생겼다는 마음에 조금씩 움직이는 아이들의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다.

5. 맺는 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던가? 먼 미래를 생각하며 진행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지금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해가는 중학교 3년 과정을 한 번에 연결하여 보면 입학 때와 졸업할 때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

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학생의 표정과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악기를 계속해서 갖고 닦아 음대에 진학한 아이들이 있다.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사례관리 학생으로 가출과 결석을 자주 하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직장에 다니며 “선생님! 제 월급이 선생님보다 많아요.”하며 와락 안기는 어른이 되어버린 졸업생도 찾아온다. 사회의 어느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인형극을 하며 배우의 꿈을 키우던 한 학생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떤 졸업생들은 스키장, 뮤지컬, 음악회, 문학기행, 꽃동네 봉사활동 등 끝없는 중학교 시절 이야기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자랑을 한다.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다 보면 나의 말 한마디와 몸짓 한 번이 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떠올리게 되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게 된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 사랑이 필요한 아이, 간식이 필요한 아이, 아픈 아이, 고민이 있는 아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 친구와 갈등이 심한 아이 등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많은 부분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도 어렵거나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적절한 기관과 연계하여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지원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재단,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이 그러하다. 손을 내밀고 달려가서 의논하며 해결하고자 머리와 마음을 맞대다 보면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보이곤 한다.

청소년기 사춘기의 아픔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다. 바라보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으면 힘들 때마다 의지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교육복지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누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 제일 난처하다. 물론 불려서 이해시키기는 하지만 두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가 아닌가 싶다. 다양한 교육적인 시도 속에 획일화 되지 않은 교육을 체험하게 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길러주고, 단체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성이 살아있는 학생,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학생,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학생이 되도록 지지하며 기다려 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다.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자라 어떤 어른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으로, 베풀고 나누며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사례 발표

제천간디학교의 필리핀 해외 이동 학습 사례

김정환(제천간디학교 교사)

제천간디학교 해외이동학습 개요

년도	참가비	기간	학기	인솔교사	학생 참가자
2014	330만원	6주	1학기 무빙 2주전 출국 (5월 말 출국하고 여름방학 2주전 귀국해 1학기 기말주간 같이 보냄)	교사 3명 (김정환·김수자·황정인), 공감만세 여행코디네이터 1명(바공실랑안-송수민/이 푸가오-조수희)	18명

1. 목표 및 교육과정 설명

1. 목표

평화여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을 한다.
(지향점)

공정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와 지속가능한 소통, 문화·자연체험, 교류, 연대활동을 한다. (형태)

필리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는 한편 여행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 조율·공감하는 힘을 키운다. (내용)

필리핀 해외체험학습은 2학기 평화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평화 여행’으로 평화에 대한 가치 탐색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여행의 형태는 ‘책임여행’, ‘윤리적 여행’ 이라고도 불리는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여행’을 따른다. 공정여행 중 여행과 봉사, 연대 활동을 펼치며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형성되는 문제의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평화 여행이란?

평화(平和)란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며, ‘평화를 지향한다.’는 말은 내면적으로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세계의 ‘분쟁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평화 여행’은 여행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단순한 관광, 문화체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평화 여행은 안락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언어, 역사와 문

화, 가치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문화와 환경과의 갈등, 여정 중 서로 ‘다름’이 극대화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정치 단위들 간의 분쟁·전쟁이 계속되고, 자본주의체제는 극심한 빈부의 차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지구 생태계와 그 안의 국가·사회·부족의 고유문화와 삶의 방식은 ‘여행·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평화 여행’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동등한 만남과 마음을 여는 소통, 각 전통문화의 정수인 예술교류, 윤리적 소비활동과 대안적 경제활동, 지속가능한 자연체험, 자본주의의 이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외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왜 필리핀인가?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평화’를 깨뜨리는 갖가지 문제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드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다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은 오랜 기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세계 1차·2차 세계 대전으로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의·타의로 한 국가로 탄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짙게 받는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합리주의 등을 앞세운 서구문명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필리핀 엘리트들을 통해 필리핀 사회에 ‘이식’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필리핀이라고 불리지만 원래 각기 다른 종교, 문화적 관습을 가진 채 살아가던 섬들에는 일찍이 해상 무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전래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식민 정책과 함께 필리핀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강압적으로 묶이면서 정치적·종교적 갈등이 시작되었고, 플랜테이션이 확대되면서 지주와 자영농 간의 경제적 갈등 역시 심화되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플랜테이션의 특성으로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옴에 따라 인종적인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미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 정치인들의 힘에 의해 눌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난 많은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경제발전, 근대화를 내걸은 독재정권이 들어서고(마르코스 정권), 이를 극복하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 단체들이 조직, 발전하기도 했다.(민중봉기 people power I, II)

이러한 필리핀 사회의 양상은 민다나오 내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정치·경제적

갈등, 미국과 외세에 길들여진 필리핀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극심한 빈부의 격차, 플랜테이션을 통한 상품작물의 대량 생산을 통해 파괴된 자영농 계층과 토지 불균형, 잘못된 관광산업 정책과 관광산업 의존에 따른 산업 간의 불균형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즉 필리핀은 인종, 문화, 종교, 경제, 정치 등 전 방위적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을 풀어내려 노력하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 역시 매우 다양한 방법과 색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다문화, 다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저력이며, 우리가 이들과 공감·연대 할 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풀어내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필리핀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립을 꿈꾸며 살아가는 다양한 부족·마을과 연대활동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간디 선생님의 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5.20.화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 인천국제공항 만남 · 19:35 7C2305 인천발 · 22:40 마닐라 필리핀 국제공항 착 · 숙박 아시아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새벽 2시
5.21.수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도시빈민연합(UPA) 방문 (의장 알리스 머피) · 점심 줄리비 자유식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카티 그린벨트 · 아얄라 박물관 · 숙박: 아시아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5.22.목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가 있는 퀘존시 빌라촌 탐방 -> 지도그리기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골실랑안’ 오리엔테이션 (트윙클) · 숙박: 아시아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5.23.금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공실랑안 이동 · 바공실랑안청년연합(BSYF: Bagong Silangan Youth Federation) 소개 및 청년들과의 첫 인사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스테이 가족들과 인사하고 동네돌아보기

5.24.토	오전	·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일일교사 (색종이접기, 풍선, 비누방울, 폴라로이드 사진, 장난감 가지고 놀기)
	오후	·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일일교사 (색종이접기, 풍선, 비누방울, 폴라로이드 사진, 장난감 가지고 놀기)
5.25.일	오전	· 바공실랑안 '바카스'마을에서 문화교류 및 '아트 클래스' 활동 (색종이접기, 한복종이접기, 풍물배우기, 동요배우기)
	오후	· 바공실랑안 'AREA C UPPER'마을에서 문화교류 및 '아트 클래스' 활동 (색종이접기, 한복종이접기, 풍물배우기, 동요배우기)
5.26.월	오전	·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책상 2개, 선생님 책상 1개 만들기
	오후	· 책상만들기를 늦게까지 마치고 바공으로 이동해서 늦은 점심식사
5.27.화	오전	·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급식만들어 먹기 (닭튀김, 샐러드)
	오후	· BSYF와 같이 마음나누기
5.28.수	오전	· 홍수예방을 위해 강가에 망고로브 나무 심기
	오후	· 바공실랑안 사람 모듬별로 인터뷰하기 (어린이집 교사, 시장, 보건소 의사) · BSYF와 간담회 · 기완이 생일 파티
5.29.목	오전	· 시티오바깥 지역에 망고나무와 깔라만시 나무 심기
	오후	· 바공실랑안 청년 축제: 바공실랑안 청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만나 뒤텁키는 노래와 춤의 축제
5.30.금	오전	· 이동: 바공실랑안 →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오후	· 휴식 · 한인여행사 '조은여행사'에 비자연장 신청 · 송수민코디와 송별식 · BSYF와 송별식 · 이동: 메트로 마닐라 → 키양안 (야간버스: 7시간)
5.31.토	오전	· 아침 6:30쯤 키양안 도착 · 시트모가 준비해 준 아침식사 · 시트모(SITMo: Save the Ifugao Terraces Movement) 소개 및 청년들과 첫 인사
	오후	· 홈스테이 배정 · 휴식 보장

일 정	세 부 내 용	
6.1.일	오전	· 키앙안 마을 둘러보기
	오후	· 전쟁사당과 이푸가오 박물관 방문
6.2.월	오전	· 키앙안 센트럴초등학교 안 '아시아 평화 도서관'에서 책정리 : 신간서적 스탬프 찍고 인덱스 붙이기
	오후	· 키앙안 센트럴초등학교 안 '아시아 평화 도서관'에서 책정리 : 기증도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하기
6.3.화	오전	· 키앙안사람들의 삶속에 들어가보기 - 일일 삶의 현장 체험
	오후	· 시트모와 간담회 - 서로 소개하기
6.4.수	오전	· 시트모와 모듬별로 소풍하며 친해지기 (농장, 강가)
	오후	· 모듬별 미션 (시트모에게 한국동요 가르쳐 주기) 경연대회 · 키앙안 센트럴 초등학교 학생들과 수업하기 (색종이접기, 축구교실, 팝업카드만들기)
6.5.목	오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가카단 계단식 논 탐방 · 나가카단 계단식 논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이니난 마을 사람들을 만나다
	오후	· 전통공연 보기 · 쓰레기통 만들기, 잡초 제거하기, 율타리 만들기
6.6.금	오전	· 나가카단 초등학교 내 아시아평화도서관 활동 - 청소하기, 페인트칠하기, 책정리하기
	오후	· 나가카단 초등학교 내 아시아평화도서관 활동 - 페인트칠하기, 책정리하기 · 나가카단 초등학교 아이들과 수업하기 - 치약만들기, 색종이접기 · 초등학교 농구골대 그물망 기증 기부금 전달
6.7.토	오전	· 빌롱마을에서 벼수확 일 돕기
	오후	· 바이니난 마을에 가서 나무심기 · 컬쳐쇼 -> 모닥불 축제
6.8.일	오전	· 이동: 키앙안 → 바나웨
	오후	· 바나웨 박물관 탐방 · 시트모와 이별

일 정	세 부 내 용	
6.9.월	오전	· 이동: 바나웨 → 바타드
	오후	· 사이먼씨 오리엔테이션 · 대나무공예 구경하기
6.10.화	오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타드 계단식 논 탐방 · 이푸가오의 젓줄, 탑피아 폭포
	오후	· 바타드 계단식 논 복원 · 이푸가오 주술사 '뭉바키'와 함께하는 안녕, 평화의 축제를 벌인다: 바타드 전통 축제
6.11.수	오전	· 집으로 엽서쓰기
	오후	· 이동: 바타드 → 바기오(장 시간 이동, 심야 도착)
6.12.목	오전	· 새벽 4시 도착 - > 휴식 보장 · 현지 오리엔테이션 : 탐아완 스태프 1인 · 탐아완마을 탐방
	오후	· 6.14일 모둠별 바기오 여행 기획하기
6.13.금	오전	· 드림캐쳐 만들기 · 전통 춤 배우기
	오후	· 탐아완 예술인 토크 - 솔라아트, 샌드아트, 티셔츠페인팅
6.14.토	오전	· 자유롭게 둘러보는 바기오 자유여행 (모둠별 이동)
	오후	
6.15.일	오전	· 이동: 바기오 → 메트로 마닐라 · 아시안브릿지 도착
	오후	
6.16.월	오전	· 휴식 · 파티 장보기
	오후	· 아버지날 행사 · BSYF 초대 저녁식사
6.17.화	오전	· 공감만세 4주 여행 전체 평가 간담회 · 공감만세 졸업식 · 조디쌤 송별회
	오후	· 이동: 메트로 마닐라 → 두마게티 (세부항공) · 환영식 및 학생 오리엔테이션

일 정	세 부 내 용				
6.18.수	오전	· 문화 오리엔테이션			
	오후	· 두마게테 탐방 및 미션투어 · 실리만 대학 박물관 방문			
6.19.목	오전	· 오슬롭 상어고래투어			
	오후	· 수밀론 섬 · 깔리카산 고등과정 학생들과 인사 · 깔리카산 고등과정 학생들과 축구경기			
6.20.금	오전	A group : 여행 (시퀴오르 섬)	B group : 반다망가	C group : 전통춤	
	오후			C group : 발렌시아 탐방	
6.21.토	오전		전통춤	반다망가	
	오후		발렌시아 탐방 깔라까산 중-고 축제 참여	깔라까산 중-고 축제 참여	
6.22.일	오전		다우인 해변 / 해양보호구역 두마게티 자유시간		
	오후				
6.23.월	오전	새벽 : 월드컵 한국-알제리전 관람 반다망가 긴급스탑회의(음주) 여행 (쿠쿠네스트+아포섬)	새벽 : 월드컵 한국-알제리전 관람 비즈공예 리기론 체험 긴급스탑회의(음주)		
	오후				
6.24.화	오전		티니클링 전통춤	하바반	
	오후		발렌시아 탐방 2차 긴급회의	2차 긴급회의 시티디니 고아원 방문(양초/놀이)	
6.25.수	오전		온천 (레드 락)	온천 (레드 락)	
	오후		3차 긴급회의		
6.26.목	오전	하바반	수공예	여행 (발렌시아+시키오르)	
	오후	시타드니 고아원(화채/한글)	리기론체험		
6.27.금	오전	수공예	하바반		
	오후	리기론	시타드니 고아원(머리끈제작/놀이)		
6.28.토	오전	콜드 스프링			
	오후	자유시간 깔리카산 학생들과 교류 간담회			
6.29.일	오전	다우인 해변			
	오후	자유시간			
6.30.월	오전	자유시간			
	오후	자유시간 밤거리 배회			
7.1.화	오전	짐싸기			
	오후	16:55 두마게티 -> 18:10 마닐라 23:55 마닐라 ->			
7.2.수	오전	04:50 인천공항 도착			

3.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준비

1) 수업명 : 필리핀 준비

2) 수업 요일과 시간 : 수 1~4 교시/ 목 묵학

3) 수업 개요 및 목적:

- (1) 필리핀의 일반적인 역사·지리·언어·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가는 지역과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 (2) 바공실랑안 어린이집, 키앙안 학교, 깔리카산에서 진행될 연대·교류 활동을 준비한다.
- (3) 바공실랑안과 키앙안에서 하게 될 프로젝트 활동비 모금을 기획·추진한다.
- (4) 공감만세와 국내 공정여행을 통해서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알아본다.

4) 수업 운영 계획

- (1) 모둠별로 필리핀 역사·지리·언어·문화에 대한 탐구활동과 공유, 모둠별 연대·교류 활동 준비.
 - 모둠별로 각각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이·베트남 네 국가의 근현대사에 대한 발제·토론 준비와 진행
 - 모둠 안에서 역사·지리·언어·문화 네 파트로 역할을 분담, 각자 탐구계획을 수립, 탐구한 내용을 모둠 안에서 공유
- (2) 전체가 참여하는 모금활동 기획·추진
 - 공감만세와 함께하는 해피빈 문구 작성, 홍보
 - 대동제 모금활동 기획·추진
 - 외부 모금활동 기획·추진

5) 수업계획 :

수업 일시	모둠활동	모금활동	전체 활동
2/26	필리핀 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 필리핀 준비에 대한 안내, 모둠 구성, 모금활동 역할 분담		

3/5	필리핀 여정 알아보기	해피빈 문구 작성 및 홍보	평화에 대한 느낌, 생각 정리하기
3/12	필리핀의 역사·지리 전체 공유		
3/19	필리핀의 언어·문화 전체 공유	21일(금) 외부 모금 활동	
3/26	강의: 아시아 근현대사와 제국주의 필리핀 이주 여성과 필리핀 음식 만들어 먹기		
4/2	입교날/ 공감만세와 함께하는 공정여행(대전 원도심 일대)		
4/9	타이· 베트남 근현대사 발표/토론		
4/1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근현대사 발표/토론		
4/23	강연: 우리는 왜 공정여행을 가야 하는가?		
4/30	친환경 제품 제작		
5/7	대동제 모금행사 준비		
5/14	최종 준비(빨래줄)		

주교재: 교과서가 깜빡한 아시아 역사 3~5권 (개인별 1,2 필독)
아시아의 어제를 걷다, 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6) 진행 결과

4/16 (목)	필리핀 이주 여성과 필리핀 음식 만들어 먹기
4/20 (일)	강의: 아시아 근현대사와 제국주의/ 충주 거리 모금
4/23 (목)	타이· 베트남 근현대사 발표/토론
4/24 (목) ~25 (금)	대전 원도심 공정여행
4/30 (목)	짐 꾸리기에 대한 안내/ 명동 거리모금, 벼룩시장 준비
5/3 (일)	명동 거리 모금, 벼룩시장(가정학습기간)
5/11 (일)	충주 거리 모금
5/13 (화)	최종 점검/ 안전교육

7) 평가

1. 다음은 필리핀 준비학습에서 진행된 것들입니다. 각기 도움이 된 점, 보완했으면 좋을 점을 적어주세요.

1) 모금활동

모금활동이 너무 빠세다.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학기 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모금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서로 협력을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필리핀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사전 탐색이 필요하다.

처음 해본 것이여서 잘될까 걱정했는데 막상 너무 잘 돼서 자신감을 가졌고, 처음에 의욕이 없어서 아쉬웠다. 처음부터 준비시간을 줄이고 바로 모금활동을 해서 보람을 느끼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가가야 하니 도움이 된 것 같다.

처음해보는 거라 사실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았다. 좋은 시도였던 것 같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금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일찍부터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미리 공부하게 돼서 좋았다.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었고, 모금활동도 어느 정도는 사회체험?... 하튼 그런 쪽으로 배운 점이 많아서 좋았다. 하지만 우리가 왜 돈을 모아야하는지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준 후 했으면 좋았겠다.

활동기금마련을 직접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열심히 하게 된다.

좀 더 일찍부터 감을 잡고 모금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좋았겠다.

모금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 여행을 왜 가고, 가서 무엇을 하는지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모듈별 준비학습

준비를 대충한 것같아 아쉽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정말 중요하다. 트라이시클 가격까지...

6명이 적당하다.

역사, 지리, 문화를 알고 가서 도움이 된듯하다. 하지만 막상 필리핀에 와서 다시 배운 것을 구체적이게 배웠기 때문에 준비학습을 조금 줄이고 모금활동이나 공감만 세에 더 비중을 두면 좋겠다.

필리핀 역사 공부는 좋았는데 다른 나라 역사와 연계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소단위로 사전 공부하는 것이 좋았다. 특히 영상보는 게 좋았다.
 다크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주변국은 딱히 할 필요가 없는 듯...

3) 공감만세와 국내 공정여행 및 강의

국내공정여행은 준비단계로 정말 좋았다.
 공정여행 체험으로 좋았다.

생각보다 좋았다. 일정을 2박3일이나 3박4일로 늘리면 좀 더 공정여행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국내공정여행은 필리핀이동학습에 있어 꼭 필요하다.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과 의미부여를 하게 해준다.

여행과 관광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필리핀 가기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몰랐는데 강의와 국내공정여행 때문인지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었다. 공감만세와의 준비기간에서 조금 더 친해지고 필리핀에 가면 좋을 것 같다.

4) 필리핀 이주여성(수셋 썸)과 함께하는 필리핀 문화 익히기

필리핀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음식 만들기는 다른 음식도 더 배우면 좋겠다. 게임도 여러 곳에서 써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음식만 좋았음.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미리 체험하는 것은 좋았으나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동요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다.

뭘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판شین나 동요를 배우고 필리핀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모둠별로 필리핀이주 여성을 인터뷰 해봐도 좋을 것 같다.

5) 아시아 역사 강의와 발제

내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발제는 무의미했다.

왜 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좋음.

크게 도움이 되는 것같지 않다.

필리핀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필리핀이 더 잘 보인다.

힘들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필리핀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쓸데는 없었지만 아시아에 관한 지식이 늘어서 좋았다.

발제보다는 강의가 아시아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필리핀 현지에 왔을 때 막 도움이 되거나 떠오르지는 않는다.

확실히 알고가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진짜 좋은 거 같다.

6) 그 외(교재, 성교육, 안전교육)

있어서 나쁠 건 없다.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 중 하나 일 것 같다.

선배들의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

문화충격을 막을 수 있었다.

성교육을 좀더 하면 좋겠다. 생각보다 필리핀과 한국의 성 차이가 컸다.

바공실랑안의 문화를 알 수 있었다.

쓸데는 없었지만 나름 괜찮았다.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게이라던지 빠끌라라는 것을 보고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성교육이 중요하다. 안전도 나름 괜찮았다.

교재는 내가 별로 안봐서 그런지 별로 필요없는 것 같다.

미리 우리와 다른 성에 대해 공부하고 가서 필리핀에 가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다.

2. 필리핀 준비학습에 넣었으면 좋을 것?

적당하다.

영어수업... 뽕쨌게...

제3의 성, 물가, 식습관, 사회구조, 지역특성 등 우리가 가는 곳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체력훈련

따갈로그어 강습, 공정여행 오리엔테이션

따갈로그어 정리 책자 만들기?

생활영어, 따갈로그어 강습... 그리고 우리가 갈 곳들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

※ 교사평가

- 필리핀 역사·문화·지리와 관련된 자료(고두환 씨 기사모음, 다큐멘터리)와 같은 정보들을 모듈별로 학습하는 것이 팀워크 다지기나 해외이동학습에 대한 주체적인 준비, 촉박한 필리핀 준비 일정 속에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전체적으로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아름다운 재단에 기금 신청서를 학생들 스스로 써 본 것은 성패를 떠나 신청서 작성 라는 자체적인 경험과 더불어 해외이동학습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모금활동은 해외이동학습 준비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 필리핀 사회와 한국 사회를 연결한다는 의미부여, 필리핀에서 진행될 활동들에 대한 기대와 탐구, 거리 모금 자체에 대한 경험 등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었다.
- 국내 공정 여행은 공감만세와 호흡을 미리 맞출 수 있다는 점과 공정 여행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팀워크 다지기 등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 모금활동 준비와 진행 자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과 우리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 탐구,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했고, 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와 모둠별 발제를 통해 ‘평화’ 라는 여행 기조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미흡했다.

19. 전체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만족도는?

	아주 만족	만족	보통	조금 안 만족	아주 안 만족
여	4	4	1		
남	3	6			

<전체적인 평가>

- 필리핀 준비과정 (공감만세와 국내공정여행, 모금활동, 모둠별 필리핀의 역사·문화·지리 준비학습,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배우는 필리핀 문화, 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와 모둠별 발제, 안전교육과 성교육)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았다. 모금활동은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을 스스로 꾸려간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재단·유네스코와의 접촉 등 한국시민사회와 필리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와 모둠별 발제는 평가가 엇갈려 고려해야겠다(책을 많이 사놔서 고민).
-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은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에서 ‘관광’의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평화여행 기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 공감만세와 현지단체의 오랜 기간 연대하고 협력한 힘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국제 연대의 멋스러움, 현지에서 우리의 요구를 넘죽넘죽 받아주는 탄력성, 안전, 필리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 공감만세 코디의 영어능력이 확보되면 영어교사가 가야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그래도 우리 영어 쌤이 붙으면 더 좋다), 한국어로 소통이 되는 어른이 추가되어 안정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긴장감(공정여행에 대한)도 조성된다.
- 장기간 홈스테이에서 노렸던 필리핀인의 일상에 녹아들기는 실패, 홈스테이 가정과의 프로그램이나 현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할 만한 자유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 우리도 현지단체와 사람에 대해 더 이해하고 알아보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현지단체에 우리에게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초반부터 뻥센 현지인들과의 만남은 영어수업 없이 영어 학습 효과를 가져왔으며, 외국어가 소통의 도구로서 얼마나 필요한지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 해외이동학습에 영어 수업은 없어도 무방하며 필리핀 준비과정에서 따갈로그 어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
- 예술체험이 기대보다 약했음, 켄베치기·드림캐처 만들기를 넘어서는 더 전통적이면서 감수성을 깨워줄 것이 있을까?

여행후기1: 권효연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 차이점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은 ‘등쳐먹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 위에 서서 돈 먹는 부자들은 다 똑같다. 필리핀 국토의 50%를 19개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고, 한국도 필리핀 보다는 조금? 나은 듯도 하지만 토토리 키 재기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본 필리핀은 한국과 닮은 점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았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바공실랑안 사람들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다. 물론 완전히 도시가 되어버린 마닐라 시내는 다르겠지만, 나는 바공실랑안 말고도 키앙안, 바기오, 두마게티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참 잘 웃는다. 지나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인사를 들었는지 모른다. 한국에서 들은 ‘안녕’이라는 말 보다 필리핀에서 들었던 어색한 ‘안녕~’들이 훨씬 수가 많을 것이다. 물론 처음 보는 외국인인, 드라마에나 나오던 한국인이 신기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왔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굳이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 호주사람들이 왔다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어쩌면 그래서 외국인이 말 거는 걸 무서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영어울렁증 같은 증상들이 생긴다. 한국에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도 모른다.

또 필리핀의 시장이나 교장선생님은 한국보다 권위적이지 않았다. 난 정말 안산시장님께 찾아가서 친구처럼 웃거나 웃긴 표정으로 사진 찍기 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 바공 친구들은 시장님께 찾아가서 진짜 친구처럼 안기도 하고 웃긴 표정으로 사진도 찍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내가 만난 시장과 교장선생님이 다 여자라는 것도 신기했다. 진짜 한국에서는 교장선생님, 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당연하게도 남자였고 여자일거란 생각은 아예 해 본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내가 본 시장, 교장은 모두 남자 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다 저녁밥을 사라네 아버지가 준비하시

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다. 우리 집에서도 아빠가 밥을 해 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보통 라면, 김치 볶음밥, 고기 굽기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라아빠가 만들어 주신 음식은 시니강이랑 여러 반찬들이었다. 아빠가 평범하게 밥을 한다는 게 정말 새로웠다.

정작 필리핀에 가서는 외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돌아와 글을 쓰고 있으니 참 많이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한국은 왜 그런 걸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다른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이번 여행은 의미 있었다.

필리핀에서 내가 얻은 것, 준 것

바공 친구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필리핀과 한국의 다른 점도 거서 제일 많이 발견했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거릴 때 먼저 다가와 주었다. 또 바공실랑안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따라왔다. 분명 귀찮았을 텐데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준 바공실랑안 친구들이 고맙다.

우리가 바공 친구들과 헤어질 때도,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마지막인데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그저 우리 생각에만 빠져있었다. 그러나 바공 친구들은 노래가사를 복사해서 서로 나눠보며 우리에게 노래를 선물했다. 분명 감사해야 할 점은 우리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주는 것만 모조리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바공 친구들이 우리를 열심히 챙겨주고 열심히 마무리하고 떠나보내는 모습에서 손님은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곳에서 내가 준 것이라곤 나무심기, 탁자 만들기, 급식활동 같은 우리의 원래 일정 빼곤 그렇게 많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홈스테이 집에서 피곤해도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 노력하고,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란스에게 노래하는 까마귀를 열심히 접어준 건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홈스테이에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행복했다.

필리핀에서 나는 원래 짜여 있는 일정들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뭔가 주려고 했다던가, 하는 일정에 대해 열성을 다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키앙안의 종이접기 수업을 하면서 좀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종이접기 수업을 할 때, 배우는 애들이 막 우리의 행동이나 말들을 몇 번씩 따라하면서 열심히 웃어대서 되게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내가 따갈로그어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졌

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애들이 나쁜 애들이고, 우리가 웃기게 생겨서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들이 흔히 놀듯이 했을 뿐이었다. 생각해 보면 살면서 처음 보는 외국인이 처음 듣는 말을 쓰는데 그게 초등학생 귀에 재밌게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우리도 테레사가 “애들아~”하는 거 맨 날 따라하면서 웃고 떠들었으면서, 굳이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웃겼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생긴 일이다. 또 그전에 우리와 놀았던 아이들은(그 아이들은 정말 아기들이었다.) 그렇지 않아서 비교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쉽게 오해가 생긴 거 같다.

사실 우리가 했던 일정 속에서 우리가 주었던 일들까지 다 적으면 참 길어진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도움을 주고 왔다기보다는 같이 놀고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한다.

평화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평화여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전에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왜 그런지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들이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새롭게 보였다. 자기 자리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을 만난 것도 좋았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이해 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행을 반만 다녀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BSYF나 시트모나 둘 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평화로워야 자신도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한다. BSYF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공실랑 안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 탁자 만들기, 홍수예방 나무심기 등을 한다. 시트모는 그 멤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옛날부터 내려져 온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것이다.

그건 마치 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동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그러면 평화로울 수도 없으니까. 시트모의 계단식 논도 같은 이야기다. 내 집이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 예를 큰 범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게 시트모와 BSYF다.

사람들은 결국 모두 이어져 있고, 함께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 우려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간디철학을 배울 때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나에게 그런대로 힌트를 준 여행이었다.

공정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필리핀 여행을 준비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바다도 많이 못가는 공정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그런 것보다 그냥 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와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더운 곳에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의미 없이 바다만 간다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을 것이다.

우리가 관광이 아닌 여행을 했던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여행사 가이드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여행을 일로만 느끼는 사람과 함께했다면 결코 즐거울 수 없다. 여행 와서 나만 재미있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니까. 관광지가 되어버린 바기오를 둘러보다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으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 늘어서 앉아있는걸 보고 기분이 참 이상했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공정여행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정여행이란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들, 민박집 주인이라던가, 내가 탄 배의 선원들이라던가, 내 여행을 정말 나만 즐거운 여행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계단식 논을 지키는 시트모 친구들과 함께한 것처럼.

이 공정여행을 통해 진짜 여행을 간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나, 언젠가 나 혼자 여행을 갈 때 공정여행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의 여행에서 아쉬운 점은 로빈슨 몰 같은 대형마트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갔다는 점이다. 골목상권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가지 않는 대형마트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다. 다음 여행에서는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여행후기2: 김민정

필리핀과 한국,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지점을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여행을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글로 나열해 보며 정리 해 보았다. 필리핀과 한국은 다른 나라인 만큼 다른 점도 많았지만 닮은 지점도 꽤 있었다.

먼저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점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필리핀과 한국은 예전에 수많은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 필리핀도 잠깐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고 스페인에게 오랫동안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아 우리나라처럼 식민 지배를 받아온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다. 필리핀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정말 심하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초국가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19개의 가문이 국토의 50%를 가지고 있고 특히 마닐라의 길거리에서 확연히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 번지르르한 건물들이 있다가도 갑자기 한 구석에 판자촌 마을이 나타났다. 또 한국처럼 사라져가는 문화나 전통들이 많았다. 라이스테라스, 문바키축제, 후드후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금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자연환경도 비슷하다. 바다와 산이 많다. 그리고 한국처럼 쌀이 주식인 나라이다.

한국과 필리핀의 다른 점도 많았다. 필리핀은 한국과는 다르게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고, 내가 본 필리핀의 사람들은 다들 인사성도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착했다. 또 더운 나라인 이유 때문인지 다들 느렸다. 식당에서도 마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았고 시간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소수의 성을 무시하고 편견들도 많은데 이곳에선 제3의 성이나 게이 등 성문화에 대해 인식이 자유로워서 쉽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커밍아웃을 하고 다들 잘 섞여 지내는 모습이 나에게겐 새로웠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민영화가 더 많이 된 나라여서 신기하게도 당연히 나라가 관리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물, 전기, 철로, 공공화장실, 버스, 신호등도 없는 나라였다. 버스가 없어서 필리핀의 대중교통으로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날씨가 습하고 일 년 내내 여름이라 비가 언제 올지 몰라 항상 우비를 들고 다녀야 했다. 식

문화는 한국처럼 쌀이 주식이기는 하지만 음식이 다 기름지고 야채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고 음식들이 다 달고 짭다.

이렇게 필리핀여행을 통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필리핀에서 내가 나누어 준 것과 얻은 것

필리핀에서 내가 성장하거나 얻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나누어 준 것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필리핀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고 밝은 모습 때문인지 나도 그런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다. 특히 BSYF친구들을 보고 많이 느꼈다. 날씨가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불쾌할 것 같은데 일그러지는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 줘서 나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또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일교사, 봉사를 하러 가서 만난 아이들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색종이 접기나 사소한 것에 좋아해주는 것에 나도 보람을 느꼈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왠지 나도 덩달아 순수해지는 느낌?...하...헛;;;이젠 아이들이 정말 좋다.(막 매달리면 피곤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외국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좋은 부모만나서 좋은 조건에서 불편함 없이 사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편안함에 무뎠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질리도록 본 바다와 푸른 산들이 생생히 내 기억, 마음속에 남아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는 느낌이다. 관광지를 가거나 유명한 곳을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고 경험하는 불편한 여행이 더 의미 있고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빈곤과 부를 보고 다 같이 잘살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거리를 던져준 여행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풍물이나 한국전통놀이 등 재능기부, 접해보지 못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다. 또 필리핀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나도 사람들에게 정도 주고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 같다. 여러모로 필리핀에서의 기억들이 앞으로 살면서 내 삶에 많이 자리 잡을 것 같다. 내가 얻은 만큼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조금 후회가 된다.

공정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공정한 여행.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공정여행이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관광이 아닌 여행, 몸이 힘든 여행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을

공정여행이라고 하나? 또 우리들의 간식을 고를 때,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필리핀에서 과자나 스낵종류를 다 휩쓸고 있는 회사(JACK and JILL, MILO)는 최대한 피하신다는 수자 쌤의 말씀에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도 공정여행이구나. 그럼 난 자유 시간 때 마다 유명한 회사 과자를 마구 생각 없이 사먹고 그랬는데.....여행막바지가 되어서 선물을 사고, 남은 용돈을 다 쓰기위해 평소에는 물건을 살 때 10페소 하나도 따졌었는데, SM몰(엄청나게 큰 백화점 같은 곳)이나 로빈슨 몰(백화점)에서 신이나 예쁜 게 보이면 그냥 거리낌 없이 살 때면 문득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던 것 같다. 공정한 여행을 하러 이곳에 왔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비가 주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봐 주세요ㅠ)

공정여행은 무엇이다! 라는 명확한 무엇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여행이 공정여행이라니, 찬찬히 다시 되돌아보았다. 4주간 공감만세와 함께 여행을 하고는 2주간은 깔리까산 필리핀 간디학교에 머무르며 의도하지 않은 관광을 하게 되면서 공정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관광을 할 때면 사실 편하다. 나만 편하면 되고,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면 현지인들과 얘기를 할 기회도 없다. 그래서 마치 텔레비전으로 여행 다큐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마음나누기 때 누가 한 말처럼 “여행은 남는 게 있지만 관광은 남는 게 없는 것”인 것 같다.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직접 땀 흘리고, 현지친구를 사귀고 홈스테이를 했던 것은 정말 값진 경험들이었다. 그리고 시티오바깥 공부방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던 것이었는데, 준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고 작은 것에도 좋아해 주는 아이들 덕분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지프니, 트라이 시클을 이용하고 마닐라와 바공실랑안에서 빈부격차를 경험하며 필리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번 공정여행에서 보완할 점은 자유여행인 것 같다. 우리가 직접 계획해서 하는 여행이 몇 번 없다보니까 공정여행의 취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유시간이라는 것에 다들 신이 나서 쇼핑이 주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공정여행을 경험하며 이런 여행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여행 말고도 내가 하는 여행도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런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평화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먼저 내면에 평화가 와야지 다른 것도 평화롭다는 말처럼 필리핀은 내 모습

을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 타지에 있다 보니 내 모습들이 하나둘씩 눈에 밝히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새삼스레 느끼고, 붙어 있다 보니까 다들 예민하기도 했지만 이만큼 진솔한 얘기를 나누거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타지에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니까 다들 으쌔으쌔 하며 지냈다.

자신도 어려운데,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들 자신만 생각했으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혼자가 아닌 우리니까!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BSYF와 시트모친구들이 정말 멋져 보였다. 망고나무 심기, 라이스테라스 복원 돕기, 벼 배기 등 사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것은 매우 작은 것이라 하고 나서도 ‘이런 것 하려고 이곳에 온 건가?’의문이 들만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면서 문제의식도 가지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영어가 안 되는 바람에 답답하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잘 섞여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아직 많이 파괴되지 않은 생태계를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행이었다.

사실 평화여행이 무엇인지 아직도 혼동이되 보완할 점을 생각할 만큼 깊게 생각하지는 못하겠다. 2학기 평화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필리핀 평화여행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언

안전한 교육과 교육의 안전 -여행하늬에 대한 새로운 성찰

하태욱(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넘나들며 배우기 두 번째 포럼: 여행을 통한 넘나들며 배우기

안전한 교육? 교육을 위한 안전!

여행: 배움의 도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위하여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주임교수)

여행은 가장 오래된 교육방법이다. 우리는 수렵채취의 시대에서부터 여행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그동안 쌓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헤쳐 나갈 용기와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가장 오래된 여행의 기록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순례라고 한다. 순례자들은 신전을 도는 여행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배움을 구했을 것이다. ‘도야’라는 측면에서 교육과 여행이 보다 본격적으로 결합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 시기가 오면 그리스는 모든 전쟁을 멈추고 선수들이 안전하게 올림피아로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랐다고 한다. 휴전기간도 처음에는 올림피아제전이 열리는 한 달에서 출발해서 점차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귀향까지 배려하여 석 달까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은 올림피아로 여행하면서 스스로를 연마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로마 카톨릭이 서구세계의 삶을 관장하던 중세에는 성지순례가 있었다. 나중에는 종교 부패의 원흉으로 지탄받기는 했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여행을 통해 신에게로 다가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었다. 보다 본격적인 교육행위로서의 여행은 그랜드투어라고 불리는 17~18세기 유럽 귀족들의 자녀교육이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유럽 곳곳의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여행하고 돌아와 새로운 중심으로 서기를 원했고 이를 지원하기에 아낌이 없었다. 이를 훨씬 앞서서 우리에게도 신라 화랑들의 수련방식이 있다. 심산유곡을 여행하며 문무와 풍류를 함께 닦았던 기록은 여전히 우리 문학과 역사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이렇듯 여행이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비교적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이는 여행이 특정한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몇 가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행을 통한 교육은 매우 통합적이다. 그 안에는 여행목적지라는 목표지점 이외에도 수많은 유무형적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통합성이 구체성을 결여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학문이 세분화되어있는 현실에서 여행과 같은 통합적 교육방식은 그 누구의 영역도 아니기에 세분화된 연구고찰이 부족하기 쉽다. ‘교육여행’이나 ‘수학여행’으로 지난 10~15년간의 자료들을 검색해보아도 여행에 대한 교육적 성찰을 천착한 질 높은 연구물을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여행목적지라는 목표지점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불분명해짐으로써 그 외의 교육적 가치가 모두 두리 문실하게 처리되고 있다. 즉, 목표지점을 다녀온다는 목표 지향적 행위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그 안에서의 교육적 가능성

을 검토하고 실천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고 없이 수학여행을 다녀온다면 그것으로 족한, 여행 자체가 교육목적이 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 이제 안전 이야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이 화두다. 각 분야별로 안전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세월호의 희생자가 수학여행길에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속에서 다수 나오면서 수학여행을 비롯한 많은 교육활동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교육가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는 자신의 책 <배움과 두려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교육의 현장에 투영함으로써 두려움을 표출하고 그 두려움은 곧장 학생들에게 전이된다고 강변한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강력하게 우리의 교육현장으로 투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빠르게 아이들에게까지 전이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길들여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메르코글리아노는 배움과 두려움이 최악의 댄스파트너이기 때문에 함께 춤출 수 없음을 강변한다.¹⁾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배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메르코글리아노의 또 다른 책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5세에서 13세 사이 중산층 아이들이 집 밖에서 자유롭게 하던 놀이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40퍼센트나 급감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상당부분 믿을 만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교육)상품의 구매로 채워지고 있다.²⁾

여행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된다. 서구적인 의미로 모험과 탐험으로서의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여행객은 즐기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관광객(Tourist)’으로서 ‘구경(Sightseeing)’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즉 안전한 여가를 편안히 구매하여 즐기는 관광소비자가 탄생한 것이다. 모험하는 주체로서의 ‘여행가(Traveller)’는 수동적 객체인 ‘손님(Customer)’가 되었다. 따라서 ‘관계를 만들고 사회와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책임성을 가지며 개방성을 통해 자기 배움을 통해 자기 배움을 실현하는 생산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은 ‘판매자와 소비자라는 경제구조 속에서 관계의 상호소통보다는 단절을 경험’하고 ‘산업사회 속에서 그 본질적 모습을 잃어버린 채 대중관광사업’으로 빠르게 변질되었다.³⁾

물론 편안한 여가선용으로서 관광의 가치가 폄하될 필요는 없다. 다만 교육은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 행위이며 성장은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이 기존 사고의 틀을 흔들 때 가장 극대화된다. 따라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배움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도전

1) 메르코글리아노 (2005).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민들레

2) 메르코글리아노 (2014). 길들여지는 아이들. 민들레

3) 서정기 (2009). ‘교육방법으로서의 여행의 의미와 과제’. 하태욱 외.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 여행 교육과정의 비판적 성찰. 대안교육연대.

의 환경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이론으로 입증해왔다. 즉 교육여행이 단순히 관광 상품의 소비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로서의 ‘도전’이 ‘안전’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제한조건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교육의 도전은 필연적으로 안전이라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두려움 때문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거세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 즉, 안전을 전제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구성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모든 짐들을 현장의 교사들에게만 지우거나 안일한 규제로 교육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모험과 도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출신 교육개혁가 권재원은 <학교라는 괴물>이라는 책에서 교육적인 수학여행(!)의 조건으로 충분한 인솔교사, 믿을만한 장소, 보험의 세 가지를 들었다. 또한 행정적인 지원과 수학여행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제기에 100% 동의하면서 더불어 상상력과 연대를 포함시키고 싶다. 교육은 여행과 교육, 청년사회적기업의 만남은 그래서 소중하다. 그 속에서 넘나들며 배우는 상상력이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상상력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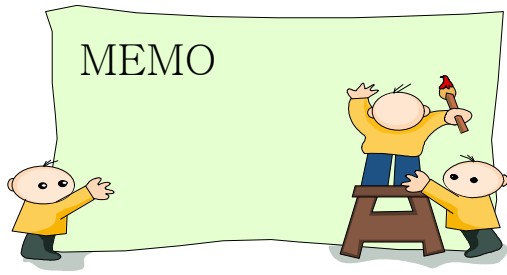
○ ‘포럼’ 설문지 ○

이 설문은 앞으로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에서 진행될 행사 운영 개선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역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포럼 환경	발표 시간이 적절하다	- 기초발표(권선희 교수)				
		- 박동우 부센터장				
		- 사례발표 - 이진숙 교육복지사				
		- 김정환 교사				
		- 제언발표(하태욱 교수)				
	포럼 장소가 적절하다.					
포럼 내용	포럼 내용이 아이들의 여행 및 체험 학습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포럼 내용이 아이들의 여행 및 체험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포럼 내용으로 여행 및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포럼 효과	본 포럼이 앞으로의 교육활동 개선에 효과가 있다.					
	다음 포럼(『교육도시』 by Yaacov Hecht, 2015.5.20.수)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					

*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와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신지요?

* 본 대안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다음 심포지움이나 포럼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나 강사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http://www.alu.ac.kr>

301-832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27번길 40

TEL 042-721-3415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소통 두 번째 포럼
『여행을 통한 넘나들며 배우기』

2015년 4월 29일 발행

발행인 : 하 태 욱

발행처 :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센터

(301-832)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27번길 40

☎ (042) 721-3415

<http://www.alu.ac.kr>

이 자료는 건신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교내기관/대안교육센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